

농촌자연마을의 지명어와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통합청주시 미원면을 중심으로-

The Geographical Language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of Rural Settlements focused on Miwon Myeon in the Integrated Cheongju City

김 태 영*
Kim, Tai-Young

Abstract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geographical language and location characteristics of 126 rural settlements focused on Miwon Myeon in the Integrated Cheongju Cit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ly, the geographical languages of 126 settlements are classified and categorized in the order of nature (91units, 72.22%), manmade and location related(35 Units, 27.78%). The geographical languages of nature, quite much in comparison with the others, are also classified into 39 'mountain', 46 'valley', and 6 'stream' units in location characteristics.

Secondly, the geographical languages of nature have 46 'valley' units, much in comparison with the others. The open circular valleys are extended from Miwon Ri of town center to Gubang Ri along route 19. The closed valleys are placed in the west and north band of town center with a background of mountain range. The 46 'valley' units are distributed widely throughout these places.

Thirdly, The geographical languages of 39 'valley' units except original 7 'valley' units are categorized with the secondary 'mountain'(rock and topography related), 'stream', 'manmade', and 'location related'. And so in considering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of rural settlements, we will have to grasp the another meaning of the geographical language.

키워드 : 농촌자연마을, 지명어, 입지특성, 미원면, '곡'계 지명어

Keywords : Rural Settlement, Geographical Language, Location Characteristics, Miwon Myeon, 'Valley' Uni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4년 7월 통합청주시의 출범에 즈음하여 청주시의 도시권역은 기존의 농촌지역으로까지 확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도시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마을 공간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도농통합으로의 변화는 도시화로의 전개에 앞서 농촌자연마을의 형성과정과 변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마을이 오래전부터 지녀 온 고유한 역사문화적 내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의 형성요인 및 고유한 특성은 무엇보다도 마을의

지명유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인문 지리적 요인에 바탕을 두고서 형성되어 온 마을에서 지명은 현재의 마을이 있기 까지 중요한 좌표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을의 지명어는 자연(自然)·인공(人工)·인명(人名) 및 신앙(信仰) 지명어를 비롯하여 신구(新舊)·대소(大小)·상하(上下)·안팎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이 형성되는 마을, 또는 마을의 규모 위치 등을 나타내는 지명어로 대별된다.¹⁾ 이들 마을 지명어의 분류 중에서 자연지명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산(山)', '곡(谷)', '수(水)계, '지형특성' 지명어로 또 다시 구분된다.²⁾

* 청주대 건축학과 교수(교신지자, E-mail: taiplan@cju.ac.kr)
"이 논문은 2014학년도에 청주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가 지원한 학술연구조성비(특별연구과제)에 의해 연구되었음"

1) 이원선, 김태영, 지명어를 통하여 본 농촌자연마을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1999.2(창간호) / 김태영, 자연취락에 있어서 지명과 공간구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산업과학연구, 2000.10, 189-195쪽

이러한 농촌자연마을의 지명 분류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마을형성의 원천적인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지명어의 어원 및 현황을 살펴보고, 분류된 지명 유형별로 입지여건 상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도농통합이 예상되는 기존 읍면 소재지의 농촌자연마을계획 수립에 있어서 마을이 지녀왔던 잠재력과 독특한 특성을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통합 청주시는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그리고 청원구 4개구로 나뉘어 있으며, 기존의 행정단위를 그대로 계승하여 3개 읍, 10개면, 243개 법정리(497개 행정리), 30개 법정동(82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청주지역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상당구는 기존의 청주시 성안동과 중앙동을 포함하여 구 청원군의 미원면, 낭성면, 남일면, 가덕면, 문의면이 해당된다.

이들 5개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은 농촌자연마을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자연지명어의 특성을 가장 잘 간직하면서 오랫동안 옛 마을의 공간구조를 그대로 지녀왔던 마을들이 산재하여 있는 곳이다. 또한 최근 들어 도시화로의 변모가 급격히 진행되어 가는 곳으로, 개발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미원면을 포함한 주변의 지형지세와 수계를 파악하고, 미원면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들의 지명어원에 따른 유형분류를 행하면서, 이들 분류된 지명어와 마을 입지특성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2. 미원면의 지세와 현황

미원면은 청주에서 동쪽으로 2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청주 청원 통합 청주시의 출범으로, 현재 청주시에 속하여 있다. 동쪽으로 괴산군 청천면과 청안면, 서쪽으로 낭성면, 북쪽으로 내수읍과 증평군, 남쪽으로 보은군 내북면과 산외면에 접하고 있으며, 미원면을 지나 보은과 괴산을 잇는 19번 국도와 청주와 연결된 32번 지방도, 그리고 미원면에서 내수와 증평읍을 잇는 511번 지방도가 사방으로 뻗어 있다.

미원면은 지형지세상 크게 미원면사무소 소재지인 미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부, 이의 북쪽과 남쪽의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부는 19번 국도변을 따라 분포된 미원리(米院里), 내산리(內山里), 수산리(壽山里), 쌍이리(雙耳里), 중리(中里), 그리고 구방리(九芳里) 일대는 비교적 평탄한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구룡천과 미원천이 각각

남류하여 면의 남단부에서 동류하는 속리천으로 흘러든다. 구룡천과 미원천 유역에는 산세의 능선에 맞춰서 하곡평야가 좁고 길게 발달하고 있다. 쌍이리에서 구방리로 넘어가는 멀티고개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평지이어서 미원면을 대표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청주시 내수읍과 낭성면, 증평군 증평읍, 괴산군 청안면에 접하고 있는 북쪽 지역은 낭성면 쪽의 인경산(仁景山, 582m), 증평읍 쪽의 좌구산(坐龜山, 657.8m)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미원면의 중심부 쪽으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511번 지방도를 기준으로 동서쪽으로 나뉜다. 동쪽의 화원리(花院里)와 용곡리(龍谷里), 대덕리(大德里), 운교리(雲橋里), 운룡리(雲龍里) 및 기암리(基岩里) 일대는 산능선을 따라 발달한 커다란 골짜기 주변(縱大谷)에 입지하고,³⁾ 서쪽의 대신리(大新里)와 종암리(鍾岩里), 화창리(花倉里), 가양리(佳陽里), 기암리(岐岩里)는 산능선의 방향에 수직으로 교차하는 작은 계곡(橫小谷)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보은군 산외면과 괴산군 청천면에 접하고 있는 남쪽 지역은 남쪽 끝자락인 계원리(桂院里)의 신선봉(644m)과 주봉(583m),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미동산(557.6m)을 경계로 나뉘면서 달천 변에 위치하고 있다. 동서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성대리(城垓里)와 운암리(雲岩里), 어암리(魚岩里)와 계원리가 달천 변으로 마을이 입지하고 있는 반면에, 옥화리(玉花里)와 월룡리(月龍里), 금관리(錦寬里)는 계곡과 교차하고 있는 횡소곡의 형태를 띠고 있다.

조선 시대 청주목의 산내일면과 산내이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지명은 마을 이름인 미원리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이 지역은 예부터 상당산 안쪽이 되므로 산안이라 하였으며, 산안이 쌀안이 되었다. 조선 시대 울봉역에 딸린 '원(院)'이 있었으므로 쌀원 또는 미원으로 불렸다고 한다. 미원리는 현재 미원 2리의 자연 마을인 '쌀안 장터'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2015년 현재 미원리를 비롯하여 24개의 법정리와 47개의 행정리, 그리고 126개의 농촌자연마을이 현존하고 있어, 행정리별로 평균 5-6개 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어암리가 10개 마을로 가장 많고,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미원리가 8개 마을로 다음이며, 괴산군 청천면과 접하고 있는 구방리, 기암리, 금관리에 7개 마을이 분포하고 있다. 2015년 5월 현재 총 2785세대에 인구는 5,394인(남 2,746인, 여 2,648인)이다.

3) 계곡은 형상에 따라 종곡(縱谷)과 횡곡(橫谷)으로 구분하며, 종곡은 나란한 두 개의 산맥 사이에서 산맥방향과 거의 평행하게 발달한 골짜기로 산맥의 방향에 수직으로 교차하는 횡곡에 비하여 길고 곡저(谷底)가 넓어 평야가 발달한 곳이 많으며, 농지로 개발된 곳이 많고 열린 공간을 형성하고 있고 그 사이로 도로가 통과하고 있다. 이들은 골짜기의 길이와 크기에 따라 대곡 입지형, 소곡 입지형으로 구분된다. 노선화, 문병선, 김태영, '곡(谷)계 지명 농촌마을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충청북도 괴산군을 대상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9권 2호 통권 26호 2007. 6, 106쪽

2) '산'은 '미(尾)', '봉(峰)', '모(牟)와 뜻을 같이 하고, 고개 '치(峙)', 언덕 '현(峴)', '들'(별관, 터 등)이외에 지물(地物)인 '동물, 수목, 암석' 등이다. '곡'은 '골', '실(實)'과, '수(水)'는 '천(川), 강(江), 지(池), 소(沼)와 관련된다. "지형특성" 지명어는 지리 형상의 생김새, 혹은 이를 형용하는 개념어에 유래되어 명명된 경우로 지형, 지세, 음양, 천문 등이 여기에 속한다.

3. 지명어와 미원면 농촌자연마을

3.1 법정리별 지명어

마을을 대표하는 미원면의 총 24개 법정리의 지명어 중 16개리, 66.67%에서 자연지명이 사용되고 있으며, 인공·위치 및 기타 지명이 각각 2개리 총 8개리에서 나타나고 있다. 법정리의 지명어 중 2개의 어원을 합성하여 명명된 7개

리<기암(基岩)리, 기암(岐岩)리, 대덕리, 가양리, 수산리, 내산리, 어암리>을 더한 31개 지명어 중에서는 자연지명이 23개, 74.19%로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연지명은 ‘산’과 ‘곡’을 합하여 8개소(중복 사용된 곳을 포함하면 11개소)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산을 끼고 있는 마을보다는 평지에 있는 곳인 수산리와 대산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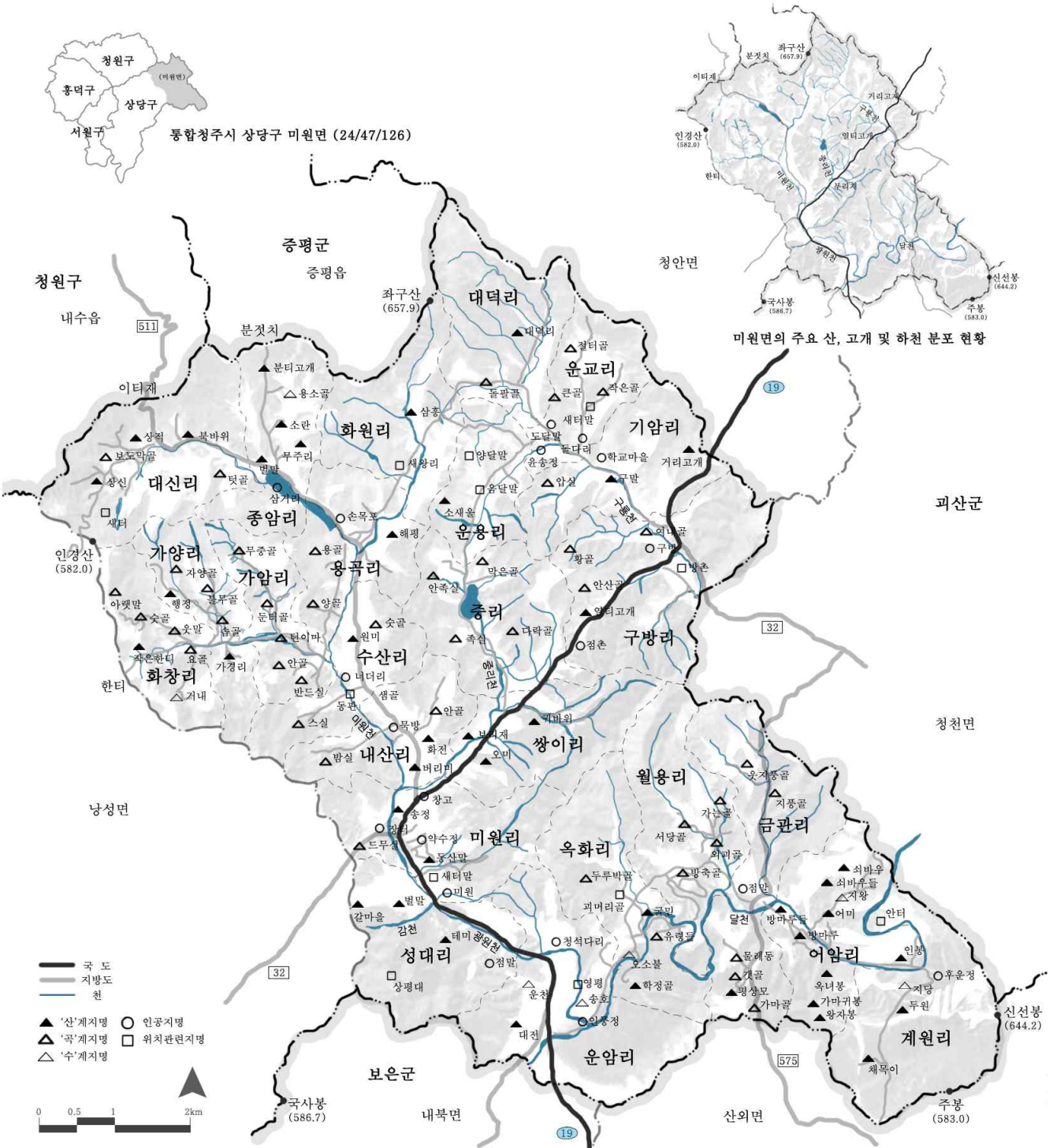


Fig. 1 The Distribution of Rural Settlements in Miwon Myeon of Cheongju City(2015)

을은 각각 수곡(壽谷)과 원산(院山)의 이름을 따서, 내곡(內谷)과 모산(牟山)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곳으로 오히려 ‘곡’의 어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곡’의 지명어는 계곡이 커다란 산맥의 방향에 따라 형성된 중대곡에 위치하고 있는 기암(基岩)리, 운교리, 그리고 용곡리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명어로 지형지물의 암석이 6개소(중복 사용된 곳을 포함하면 9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명어는 산세가 심한 곳 주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교적 편평한 쌍이리라든가, 달천에 면하고 있는 운암리와 어암리, 그리고 인근의 월용리에서도 보이고 있다. ‘쌀고을’을 뜻하는 미원이라는 지명이 암시하는 ‘들’이라든가, ‘천’의 지명어는 낭성과 평대(坪埗)의 이름을 딴 성대리 1개소에서만 보인다.

인공지명으로는, 쌀을 생산하는 미원리와, 솥골을 의미하는 화(禾)와 창동(倉洞)의 이름을 딴 화창리 2개소가 있고, 신앙지명으로는 대덕사가 위치하고 있는 대덕리 1개소, 그리고 상하 안팎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는 중리와 대신리 2개소가 있다.

3.2 농촌자연마을의 지명어

2015년 9월 현재 미원면에는 총 126개소의 농촌자연마을이 분포하고 있는데, 법정리 24개리로 볼 때 각 리 당 평균 5-6개소의 마을이 있으며, 행정리 47개리로 볼 때 각 리 당 3-4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총 126개소의 마을의 지명어는 ‘산’계 지명 39개소, ‘곡’계 지명 46개소, ‘수’계 지명 6개소로 자연지명이 91개소이며, 인공 및 기타 지명이 36개소이다. 자연지명이 전체의 72.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충북지역 농촌자연마을의 자연지명어 비율 71.6%와 유사하나,⁵⁾ 통합청주시의 44.06%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이다.⁶⁾

자연지명 중 39개소의 ‘산’계 지명어는 ‘산’ 8개소, ‘언덕과 고개’ 7개소, ‘들’ 7개소로 마을의 구체적인 입지 형상을 나타내는 지명어가 22개소로 가장 많고, 지형적 특징이 마을의 모습을 대표하는 지명어는 10개소이며, 수목이나 암석과 같이 지물의 지명어를 갖고 있는 마을도 7개소에 달하고 있다.

‘곡’계 지명어는 46개소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지명어들이 ‘곡’계 지명어인 ‘곡’, ‘골’, ‘실’, ‘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입지 상으로 볼 때는

4) 수강지소(水江池沼)를 총칭함

5) 충북에 분포하고 있는 6,205개의 농촌마을의 지명어 중 자연지명어군이 4,442개(71.6%), 인공지명어군이 756개(12.2%), 인연지명어군이 329개(5.3%), 신앙지명어군이 268개(4.3%), 기타가 410개(6.6%)를 차지한다. 노선화, 김태영, 충북지역 농촌마을의 지명어 유형분류,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5.10, 543-546쪽

6) 통합시 읍면별 243개의 법정리에 산재하고 있는 농촌자연마을은 2013년 12월 현재 총 1,180개이다. 이들 중 자연지명을 갖고 있는 마을은 520개로 44.06%를 차지하고 있다. 김태영, 통합 청주시 농촌자연마을의 분포 현황 및 지명어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14. 5, 27-34쪽

이러한 분류가 맞다고 생각되지만, 지명의 연원을 추적하는 관점에서는 ‘곡’이외의 다른 의미에 가중치를 두어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⁷⁾ ‘수’계 지명어 6개소 역시 ‘곡’과 관련된 지명어를 제외한 천(川), 호(湖), 천(泉), 연못(潭, 池) 등의 지명어만으로 표기된 것이다.

인공지명 총 19개소 중 마을의 교통관련 시설물이나 유물·유적 또는 관청을 소재로 한 마을이 10개소, 그리고 지역 자원이나 생산에 연유된 마을 지명이 9개소이다. 이들 인공지명은 면 소재지인 미원리의 8개 마을 중 4개 마을이 차지하고 있어, 교통과 산업에서 가장 활발한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신구·대소·상중하·안팎 등 시대가 흐름에 따라 마을의 원래 터나 그 주변으로 새로이 형성되는 마을, 또는 마을의 규모 위치 등을 나타내는 위치관련 지명어도 13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외에 사찰과 민간 신앙, 무속, 풍수 등에 의해 명명된 신앙지명도 2개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4. 지명어 유형별 입지특성

4.1 자연지명

(1) ‘산’계 지명어

‘산’과 관련된 지명어로는 ‘산’ 이외에 언덕(峙, 岬), 고개(峴, 峴), 들, 그리고 지물(地物)인 동물, 수목 및 암석, 그리고 지형상의 특징이 있다. 산록과 산자락에 입지하고 있는 마을들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작 마을의 ‘산’을 지명어로 택하고 있는 마을들은 8개 마을에 불과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미원면 서남쪽의 낭성면, 보은군 내북면과 산북면에 면하고 있는 마을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낭성면에 접하고 있는 마을로는 가경리의 으뜸마을인 가경리(佳景子), 수산리의 원산(院山),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산이 있는 내산리의 버리미/모산(牟山), 삼면이 삼태기 모양으로 막힌 삼태기 모양의 산이 있는 테미가 있다. 남쪽의 보은군에 접하고 있는 마을로는 평상(平床)처럼 평평한 산에 형성된 마을인 금관리의 평상모, 그리고 어암리의 어미(魚尾), 방(房)마루, 가마귀봉의 3개 마을이 있다.

‘언덕’과 관련된 지명어로는 미원리의 동산말과 계원리의 언덕진 크고 넓은 곳에 위치한 두원(斗院) 2개 마을이 있다.⁸⁾ ‘고개’의 지명어 마을들은 19번 국도변에 면하여 있는 마을들로는 쌍이리의 보리재, 구방리의 매우 험악한 열터고개, 괴산군 청안면으로 통하는 기암(岐岩)리의 거리고개의 3개 마을이 있으며, 증평군 증평읍으로 이어지는 종암리

7) ‘곡’계 지명어의 이중적 성격을 감안하여 지명어를 재분류하여 보면, 자연지명 70개소(55.55%)이며, 자연지명어 이외의 56개소는 인공지명 27개소(21.43%), 위치 24개소(19.05%) 순이고, 신앙지명과 기타는 각각 3개소, 2개소로 나타났다. table 2와 3 참조/ 4장 4.1 (2) ‘곡’계 지명어 내용 참조

8) 그리고 마을이 둔덕처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기암(基岩)리의 둔터골(屯堡谷)도 여기에 속하나, ‘곡’계 지명어로 분류하였다.

Table 1 Geographical languages of Administrative District(Ri) and rural settlements in the Miwon myeon of Cheongju City (2015)

법정리명 (행정리 수)	지명어원	자연지명										인공지명			인연지명	신앙지명	위치			기타	합계	
		산							곡	수	계	교통, 시설물	산업, 생산물	소계	인명, 성씨, 동부락	종교, 수리	상하부락	음양	소계			
		산	언덕	고개	들	지물	지형	소계														
동물	수목	암석	지형	소계	곡	수	계	교통, 시설물	산업, 생산물	소계	인명, 성씨, 동부락	종교, 수리	상하부락	음양	소계							
미원(米院1-3,5,6)	산안-쌀안, 쌀원, 쌀고을		1			1		2	1	3	1	3	4			1	1		8			
쌍이(雙耳)	상이(上耳),하이(下耳)의 뜻		1			1	1	3		3			0					0	3			
중(中1,2)	면 중앙부							0	4	4			0					0	4			
구방(九芳1-3)	9개의 말집		1					1	3	4	1	1	2			1	1		7			
기암(岐岩)*	기산과 구암의 이름		1			*	1	2	1	3	1		1					0	4			
운교(雲橋1,2)	운곡과 석교의 이름							0	3	3	3		3			1	1		7			
대덕(大德)*	좌구산 밑의 큰언덕, 대덕사		*					0	1	1			0		1			1	2			
운룡(雲龍)	상운동과 용암리의 이름							0		0			0		1		2	1	3			
화원(花院)	(종암리와 대덕리 사이)							0		0			0			1	1	1	2			
용곡(龍谷1,2)	용동과 관곡의 이름			1				1	2	3		1	1					0	4			
중암(鍾岩1,2)	기암(基岩)리와 인접		1	1		1	1	4	1	5		1	1					0	6			
대신(大新1,2)	대동과 신리의 이름					1	1	1	2	3			0		3		3		6			
화창(花倉)	화동리에서 변경		1					1	4	1	6		0					0	6			
가양(佳陽1,2)*	가경리와 자양리의 일부	1				1		2	3	5			0			*	0		5			
기암(基岩1,2)*	기곡과 가암의 이름					*		0	5	5			0					0	5			
수산(壽山1,2)*	수곡과 원산의 이름	1						1	2*	3	1		1			1	1		5			
내산(內山1-3)*	내곡과 모산의 이름	1				1		2	3*	5		1	1					0	6			
성대(城埧1-3)	낭성과 평대(坪埧)의 이름	1		1			1	3		3		1	1			1	1		5			
운암(雲岩1,2)	운동과 굴암의 이름			1				1		2	3	2	2			1	1		6			
옥화(玉花1,2)	옥화대산 둘레에 있으므로			1			2	3	2	1	6		0					0	6			
월룡(月龍1,2)	월암리와 용암동의 이름							0	4	4			0					0	4			
금관(錦寬1-3)	금선(錦鮮)과 관동의 이름	1						1	5	6		1	1					0	7			
어암(魚岩1,2)*	어미(漁尾)와 소암의 이름	3		2			4*	9		1	10		0					0	10			
계원(桂院)	계당리와 두원리의 이름		1				1	2		1	3	1	1			1	1		5			
24개리(47개리)		8 (5)	7 (0)	7 (1)	0 (0)	4 (1)	3 (6)	10 (0)	39 (13)	46 (3)	6 (0)	91 (16)	10 (2)	9 (1)	19 (3)	0 (0)	2 (1)	11 (2)	2 (0)	13 (2)	1 (2)	126 (24)

* 표시는 2개의 어원이 합성하여 된 법정리명/셀 툰 표시는 법정리의 지명어를 나타낸 것임

의 분티 고개, 낭성면 인경리와 접하고 있는 화창리의 작은 한티 마을을 포함하여 총 5개 마을이 있다.

‘들’(별판, 터 등)과 관련하여서는 미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편평한 지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다른 곳 7개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다처럼 넓은 들이라는 뜻을 지닌 용곡리의 해평(海坪), 별판 가운데 있는 중암리의 별밭, 성대리의 별밭/평대(坪臺)/평촌(坪村), 텃밭을 가꾸던 곳인 운암리의 대전(垵田), 옥화리의 유령(有靈)들, 그리고 어암리의 방마루들과 쇠바우들이다.

지물(地物) 중 ‘암석’과 관련한 법정리 지명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마을 지명어는 쌍이리의 귀바위, 중앙

리의 소란(花岩), 대신리의 북바위 3개 마을로 대표된다. 이외에도 ‘곡’계 지명어와 관련되어 돌이 많은 대덕리의 돌팔골, 용곡리의 용골(용바윗골), 불무바위가 있는 가양리의 불무골, 그리고 거대한 암석이 있는 옥화리의 두루박골, 월룡리의 가는골(개눈골)/용암(龍岩)과 옥계골/옥암(玉岩)의 6개 마을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산’의 지명어와 달리 반대편인 동북쪽의 괴산군 청안면과 증평군 증평읍에 면한 마을에 분포하고 있다.

수목과 관련하여서는 4개 마을이 있는데, 면 청사 부지 내에 노송과 정자가 있는 미원리 송정, 오동나무가 많은 쌍이리 오미, 살구나무가 있는 행정(杏亭), 그리고 예전 들판

Table 2 Geographical Languages of Rural Settlements in Miwon Myun of Cheongju City

분류	유형	지명어(공간언어)	마을수 (법정리수)계<%>		
자연 지명	산 (山)	산(山)	가경리(佳景子),원미(院山),버리미(모산牟山),테미(낭성琅城),평상모,어미(魚尾),방(房)마루,가마귀봉(• 기암리岐岩, 가양리, 수산리, 내산리, 옥화리)	8(5)	39 (13)
		치(峙) 현(峴)	동산말,보리재(牟城),열티고개,거리고개(기산동),분티(粉峙)고개,작은 한티,두원(斗院)	7(0)	
		들(坪)	해평(海坪),벌말(하적下赤),벌말(평대坪垈),대전(垈田),유령(有靈)들,방마루들,쇠바우들(• 성대리)	7(1)	
		수목(樹木)	송정,오미(梧山),행정(杏亭),화전(花田)(• 계원리)	4(1)	
		암석(岩石)	귀바위(耳岩),소란(花岩),북바위(上赤),(• 쌍이리, 운용리, 중앙리, 운암리, 월룡리, 어암리)	3(6)	
		지형특징 (地形特徵)	구말,무주리(舞笑里, 盛化),갈마을(감당甘棠),굴밑,학정(鶴頂),쇠바우(소암小岩),인봉(印峰),옥녀봉,왕자봉,채목이	10 (0)	
	곡(谷)	언덕(1) : 둔터골(屯岱谷)* 수목(1) : 솔골(松洞) 암석(6) : 들팔골,용골(용바윗골),불무골(야동, 팔계리),두루박골,가는골(龍岩),옥계골(玉岩) 지형특징(6) : 죽실,막은골,여내골,압실(鴨室),괴머리골(甘雲, 抽首洞),가마골(부동釜洞) 곡(7) : 드무실,안산골,황골,작은골(小谷, 雲谷),반드실,턴이마(기곡,基谷),스실(외삼곡外三谷) 수(5) : 용소골,숯골(화동禾洞),무중골(수락),숯골(수곡 壽谷),방축골(防築洞,月谷), 교통,시설물(6) : 보도막골(保道洞),요골/창동(倉洞),샘골(大板),서당골(書堂),갯골(介洞),물레동 산업,생산물(2) : 다락(多樂)골,밤실/울동(栗洞) 종교(1) : 질터골(寺洞厚水) 상하,안팎(8) : 안죽실,큰골(大洞),아랫숯골,웃숯골,안골,안골/내곡(內谷),아랫지풍골,웃지풍골 음양(2) : 양골(陽谷),자양골(紫陽) 기타(1) : 텃골 (• 운교리, 용곡리, 기암리 基岩)	46(3)	91(16) <72.22>	
수(水)	거내(巨川),松湖(華川,玉湖),운천(雲泉),오소불(牛潭),지왕(池旺),지땅(계당桂塘)	6(0)			
인공 지명	교통, 시설물	약수정,구방,학교말(교동),도달말(長城),돌다리(石橋),운송정(雲松亭),너더리(판교板橋),인풍정(引風亭),청석다리/굴암(窟岩, 후운정(後雲亭)(• 구방리, 화창리)	10(2)	19(3) <15.08>	
	산업, 생산물	창고(倉庫),장터(市場),미원,,점촌(옹기점),손목포(주막거리),삼거리(주막거리),묵방(墨坊),점말/화암(花岩),점말/관동(寬洞)(• 미원리)	9(1)		
신앙 지명	종교, 풍수, 지리	대덕리,소쇄울 (• 대덕리)	2(1)	2(1) <1.58>	
위치	상하(上下), 안팎	새터말,방촌,새터말(新基),새왕이(돈들말),상신(上新),상적(上赤),새터(新里),동판(東板),상평대(上坪垈),영평/운동(雲東),안터(內基)(• 중리, 대신리)	11(2)	13(2) <10.31>	
	음양(陰陽)	양달말,음지촌	2(0)		
	기타	삼흥(三興)(• 화원리, 금관리)	2(2)	2(2) <1.58>	
합 계 (• 법정리)			126(24)	<100>	

에 꽃이 많았다고 하는 내산리의 화전(花田)의 4개 마을이 있다. 이외에도 예전에 소나무가 많았다 하여 명명된 가양리의 솔골/송동(松洞)도 이 분류에 속한다고 하겠다.

지형상의 특징과 관련된 지명어는 주로 마을이 입지하고 있는 전체 지형지세의 모양을 일컫고 있다. 산이 9개의 용마처럼 생겼다는 기암(岐岩)리의 구말, 마을 뒷 산형이 선인이 춤을 추는 형상이라는 중앙리의 무주리(舞笑里, 盛化),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인 갈마을수형과 비슷하다고 하는 성대리의 갈마을/감당(甘棠), 마을 뒷산에 자연적으로 생긴 암혈이 있다는 옥화리의 굴밑과 뒷산이 학의 목처럼 생긴 학정(鶴頂), 어암리에 소재하면서 마을 뒷산이 소머리와 같은 쇠바우/소암(小岩), 옥쇄 모양의 인봉(印峰),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옥녀봉, 왕(王) 자 모양의 왕자봉이 있으며, 산 앵두나무가 많은 중요한 좁은 통로 모양의 계원리 채목이 마을 총 10개소가 있다. 이외에도 ‘곡’계 지명어와 중복되는 마을도 6개소가 분포되어 있다.

(2) ‘곡’계 지명어

‘산’과 ‘곡’은 서로 표의 관계에 있는 지리적 조건이어서, ‘산’계 지명어와 마찬가지로 ‘곡’계 지명어 역시 많은 마을에서 나타나고 있다. ‘곡’은 산골에 있는 마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골’을 의미하는 데서 유래된 이름임과 동시에 동(洞)의 뜻인 ‘고을’이 ‘골’로 되어 생긴 땅이름이다. ‘실’(實) 역시 골을 의미한 옛말인데 산골짜기의 작은 내를 말한다. ‘골’은 도서, 내륙지방에 주로 깔려 있으나, ‘실’은 내륙 산간 지방에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⁹⁾

미원면의 ‘곡’형 입지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19번 국도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은 종곡(縱谷)과 남쪽의 달천 변은 횡곡의 형상을 띠고 있다. 미원리에서 시작하여 내산리와 수산리를 거쳐 511번 지방도 동쪽의 용곡리와 화원리, 대덕리·운교리·운용리 및 기암(基岩)리에 이르기까지 산 능선을

9) 땅이름 국토사랑, 강길부, 집문당, 1997, 76쪽

Table 3 The 'Valley' Units of Rural Settlements in Miwon Myeon

구분	자연지명									인공지명			인연지명	신앙지명	위치			기타	합계		
	산								곡	수	계	교통 시설물	산업 생산물	소계	인명, 동성 부락	종교 풍수 지리	상하 안팎			음양	소계
	산	언덕 고개	들	지물			지형 특징	소계													
마을 개수	8	7	7	0	4	3	10	39		6	45	10	9	19	0	2	11	2	13	1	80
“곡”계 마을 개수	0	1	0	0	1	6	6	14	7	5	26	6	2	8	0	1	8	2	10	1	46
계	8	8	7	0	5	9	16	53	7	11	71	16	11	27	0	3	19	4	23	2	126

따라 발달한 커다란 골짜기 주변(縱大谷)에 입지하고, 달천변에 입지하고 있는 옥화리와 월용리, 그리고 금관리는 계곡과 교차하고 있는 횡소곡의 형상을 띠고 있다.

또한 미원면에서 ‘곡’계 지명어의 특징을 가장 나타내고 있는 마을들은 수산리의 511번 지방도에서 낭성면 인경리로 넘어가는 작은 험티에 이르는 계곡에 면하여 있다. 이들은 화창리, 가정리, 그리고 기암(基岩)리의 마을들로서 솥골, 아랫솥골, 요골, 불부골, 솔골, 자양골, 반드실, 안골, 기곡(基谷), 둔터골, 무중골 등과 같이 대부분의 마을들이 ‘곡’계 지명어이다. 커다란 계곡에서 가지처럼 나누어진 골짜기에서 산마루와 능선을 중심으로 골이 패어있는 형태이다. 대부분 작은 골짜기이지만 수계를 가지고 있고, 마을 주변은 삼면이 병풍처럼 자연지세가 감싸 안고 있는 형세를 하고 있다.

자연지명어 중 ‘곡’계 지명어가 46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미원리의 드무실, 구방리의 안산골과 황골, 운교리의 작은골(小谷, 雲谷), 기암(基岩)리의 반드실과 턴이마/기곡(基谷), 수산리의 스실/외삼곡(外三谷)의 7개소를 제외한 39개소의 마을들에서 지명연원 상 또 다른 2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곡’계 지명어로서의 성격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39개소는 ‘산’계 지명어 14개소, ‘수’계 지명어 5개소, 인공지명 8개소, 위치관련 지명 10개소, 신앙지명과 기타 각각 1개소와 겹친다.(Table 3 참조)

(3) ‘수’계 지명어

마을 앞에 커다란 천이 있는 화창리의 거내(巨川), 물이 많이 나는 운암리의 송호(松湖/華川, 玉湖)와 운천(雲泉), 우소(牛沼)라는 연못이 있는 옥화리의 오소불/우담(牛潭), 못이 있는 어암리의 지왕(池旺), 물이 있어 땅이 질다는 계원리의 지땅(계당 桂塘) 6개소로, 이들은 주로 달천변의 비교적 평탄한 곳에 입지하고 있는 마을들이다.

이외에 ‘곡’과 관련된 마을인 용소(龍沼)가 있는 종암리의 용소골, ‘물골’을 뜻하는 ‘수골’을 의미하면서, 물이 흔하여 벼농사를 해왔기에 화동(禾洞)으로도 불리운 화창리의 솥골(화동), 물 가운데 있는 골짜기에 입지한 기암(基岩)리의 무중골(수락), 수산리의 솥골/수곡(壽谷), 방죽이 있는 월용리의 방죽골(防築洞, 月岩)의 5개소 대부분은 작은 골짜기인 횡소곡에 입지하면서 골짜기를 따라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다.

4.2 인공지명

인공지명으로서 교통, 유적 및 공공시설과 관련해서는 9개의 말집이 있는 구방리의 구방을 비롯하여 인접한 기암(岐岩)리와 운교리에 많은 마을들이 밀집하여 있다. 2000년에 폐교된 미원초등학교 기암분교장이 있었던 학교말(교동), 이전에 성(城)이 있다고 하는 도달말/장성(長城)과 인근의 돌다리/석교(石橋)와 운송정(雲松亭) 마을이 입지하고 있어 예전에는 매우 번성하였던 마을들로 보인다. 이외에 정자를 마을의 지명어로 취하고 있는 곳으로는, 약수샘이 있는 미원리의 약수정, 운암리의 인풍정(引風亭), 계원리의 후운정(後雲亭)이 있다. 석교이외에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를 지명어로 택한 곳으로는, 널빤지로 깔아 놓은 다리라 하여 붙여진 수산리의 너더리/판교(板橋), 운암리의 청석다리/굴암(窟岩)이 있다.

지역의 산업이나 생산물과 관련하여서는 미원리에만 3개소가 있는데, 엽연초 생산조합 창고가 부근에 있다고 하여 명명된 창고(倉庫) 마을, 5일장 쌀안 장터가 선다고 하는 장터(市場), 그리고 쌀고을이라 불리는 미원 마을이다. 이외에도 용기점이 있었던 구방리의 점촌(용기점), 성대리의 점말/화암(花岩), 금관리의 점말/관동(寬洞)이 있고, 주막거리로는 용곡리의 손목포와 종암리의 삼거리가 있으며, 그리고 내산리의 묵방(墨坊)이 있다.

인공지명에도 ‘곡’계 지명어와 관련된 지명어로 교통시설물 6개소, 산업 생산물 2개소가 있다. 교통시설물로는, 포도청이 있었던 대신리의 보도막골(保道洞), 창고가 있었던 화창리의 요골/창동(倉洞), 내산리의 샘골(大板), 월용리의 서당골(書堂), 갈라지는 곳에 마을이 입지하였다는 갯골(介洞), 물레방아가 있었던 금관리의 물레동이다. 생산물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약이 있었다고 하는 중리의 다락(多樂)골과 밤이 많이 났다는 내산리의 밤실/울동(栗洞) 마을이 있다.

4.3 위치관련 및 기타 지명

마을의 신구·대소·상하·안팎·동서남북과 관련된 지명어는 원래의 마을 터 주변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마을이다.

신구 마을과 관련해서는 새터말, 구방리 밑의 방촌, 새터말(新基), 새왕이(돈들말), 상신(上新), 새터(新里)마을이 있으며, 상하 지명어로는 상적(上赤)과 상평대(上坪垔), 안팎을 의미하는 지명어로는 안터(內基), 동서남북의 방향을 지

칭하는 마을 지명어로는 영평/운동(雲東), 동판(東板)이 있다. 음양과 관련해서는 운용리의 양달말, 음지촌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기타 신앙지명으로는 지금은 철거되어 없으나 예전에 대덕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는 대덕리, 수호신과 경계신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솟대가 있는 운용리의 소쇄울 2개소가 있으며, 화원리의 삼흥(三興)은 동네가 세 번 일어났다고 하는 데에서 마을 지명이 명명된 것이다.

‘곡’계 지명어와 관련하여서는 대소·상하·안팎 8개소, 음양 2개소, 신앙지명과 기타 각 1개소가 있다. 대소와 관련해서는 운교리의 큰골(大洞)이 있고, 상하로는 화창리의 아랫 솟골과 웃 솟골, 금관리의 아랫 지풍골과 웃 지풍골이 있으며, 안팎은 죽실 안쪽 마을인 중리의 안죽실, 기암(基岩)리와 내산리의 안골과 안골/내곡(內谷)이다. 음양의 2개소는 용곡리의 양골(陽谷)과 가양리의 자양(紫陽)골 모두 양지바른 계곡에 입지하고 있다. 이외에 운교리의 절터골(寺洞厚水), 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대신리의 텃골이 있다.

5. 결론

통합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24개 법정리(47개 행정리)에 산재하여 있는 126개소의 농촌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지명어 현황과 이에 따른 입지특성을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지명어의 현황에 있어서, 자연지명인 ‘산(山), 곡(谷), 수(水)’계 지명어 91개소, 인공 및 기타 지명어 35개소로, 자연 지명이 72.22%를 차지하면서, 충북의 여느 농촌자연마을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자연지명이 과반을 넘지 못하는 통합청주시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91개소의 자연지명은 ‘곡’계 46개소, ‘산’계 39개소, ‘수’계 6개소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이들 자연지명의 유형별 입지특성에 있어서,

46개소라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곡’계 지명어는 미원리에서 구방리로 이어지는 미원면 중앙의 환상형 종곡(縱谷)에 면한 마을들, 서쪽 화창리·가경리·기암(基岩)리와 남쪽 월용리·금관리의 횡소곡(橫小谷) 마을들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산’계 지명어는 지형상의 특징 및 지물(地物)과 관련해서는 접도구역을 중심으로, 들(坪)을 비롯하여 고개(峙)와 언덕(峴)과 관련해서는 도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면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19번 국도에 보리재, 열티고개, 거리고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수’계 지명어는 달천 주변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자연지명이외에 인공지명 중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동쪽에 위치한 구방리, 기암(岐岩)리 및 운교리에, 지역산업과 관련해서는 미원면을 중심으로 밀집되었으며, 신구·대소·상하·안팎의 위치관련 지명은 대신리를 비롯하여 각각의 마을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 자연·인공·신앙 및 위치관련 지명 중 46개소에 달하는 ‘곡’계 지명어는 ‘곡’이라는 지형지세적 특징을 갖고 있는 7개소 이외에 39개소는 ‘산’계의 암석과 지형특징을 나타내는 지명어, ‘수’계 지명어, ‘교통 및 위치’ 지명어 등과 관련하여 지명연원 상의 또 다른 2차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하나의 지명어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 따른 다양한 입지상의 해석과 더불어, 이들 다의적인 지명어가 개개 농촌자연마을의 공간구조와 건축물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연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태영, 자연취락에 있어서 지명과 공간구조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산업과학연구, 2000.10, 189-195쪽
2. 노선화·김태영, 충북지역 농촌마을의 지명어 유형분류,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5.10, 543-546쪽
3. 노선화·문병선·김태영, ‘곡’(谷)계 지명 농촌마을의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충청북도 괴산군을 대상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07. 6, 103-111쪽
4. 김진식, 청원군 지명유래, 청원문화원, 2008
5. 김태영, 통합 청주시 농촌자연마을의 분포 현황 및 지명어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14. 5. 27-34쪽

접 수 일 자 : 2015. 10. 10

심사완료일자 : 2015. 11. 20

게재확정일자 : 2015. 11. 23